

每日新聞

매일신문 입력 2022-08-08 16:01:57 수정 2022-08-08 16:01:41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 합천지사,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

박차호기자 chpark@imaeil.com

매일신문 입력 2022-08-08 16:01:57 수정 2022-08-08 16:01:41

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 합천지사(지사장 손홍모)는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(지부장 강문규)와 함께 8일 봉산면 기초생활수급가정을 찾아 도배, 장판, 싱크대 교체, 판넬, 에어컨 설치 등 농촌 집 고쳐주기 행복충전활동을 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의 '농촌 집 고쳐주기'는 2008년부터 다솜등지복지재단과 함께 농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.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직원 15여 명은 전문업체의 공사 시행 전 가구나 짐을 정리했으며, 해당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주기로 한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직원들도 힘을 모았다.

김길환 봉산면장은 "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해 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직원과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"고 전했다.